

유희는 인간의 정신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축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놀이는 모두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축제의 유희에 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신년의 정월, 여러가지 놀이가 있습니다.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등이 있습니다.

첫번째, 윷놀이는 가족 모두가 모여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월의 놀이로써 일반적인 놀이입니다. 이 놀이의 특이한 것은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이 놀이의 도구는 나무로 만든 4개의 봉으로, 이 봉을 높이 던져서 떨어진 모습을 보고 점수를 보는 것입니다.

두번째, 널뛰기는 나무판의 중앙 밑에 무거운 것을 두고서 양방의 판에 여자아이가 서서, 교대로 판을 강하게 뛰는 것입니다. 뛰는 힘으로 상대가 공중에 뛰는 것입니다.

세번째, 연날리기는 연을 만들기를 비롯해서, 높이올리기, 연실끈기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물론, 어른들중에서도 있습니다.

연날리기는 단순히 연을 높이 날리는 것만이 아니고 남의 연의 실을 끈는 것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날리기는 한국에서는 정월에 대회도 열립니다.

8월의 축제에는 강강술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하는 놀이로써, 단순한 놀이이지만, 정신적 인명을 중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에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도는 것이고, 달 밤에 여자들의 놀이입니다.

이것만이 아닌 다른 놀이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노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 가능한 놀이가 한국의 놀이다라고 생각합니다.